

【발기취지문】

조국신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 발기취지문

우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새로운 시민행동을 시작한다. 우리는 3.1운동, 4.19혁명, 5.18민주항쟁, 6월항쟁, 촛불항쟁에 참여했던 모든 시민의 정신과 저항권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행동하고자 한다.

1987년 체제는 온갖 압제와 억압을 견디고 이룩한 민주화 투쟁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정경유착과 권언유착의 심화,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의 팽배, 이분법적 진영논리의 확산과 언론의 반민주적 왜곡이 심해지면서 국민의 생명은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민생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거기에 선출되지 않은 검찰 권력이 집권자의 양순한 칼이 되어 사법의 공정성을 흔들었던 모습에서 이제는 아예 집권세력과 한 몸이 되어 국정전반을 장악하고 수사농단을 일삼고 있어 민주주의 체계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로 인한 장기침체와 서민경제 붕괴 위기,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소멸 위기,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의 발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기술 종속과 노동 위기 등 대한민국은 위기 공화국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위기는 외면할뿐더러 민생까지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는 것도 모자라 무도하고 무능하며 무책임한 국정 운영으로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분연히 일어나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행동하려 한다.

정치는 정쟁이 아니라 국민 행복을 위한 정책의 발굴과 실행이 핵심인 공공 서비스다. 국가적 난제를 풀지 못한 과거 정치를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정치를 우리는 행동으로 거부한다. 정책 발굴과 실현 사이의 괴리를 최소한으로 좁히는 것이 우리의 정치철학이다.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책정당으로 시민행동이 보장되는 국회, 행정부, 사법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설정하고자 한다. 그 구성과 운영에 시민 참여의 폭을 넓혀 투명하게 평가하고 감시하는 장치를 만들어 시민 민주주의를 정립하기 위해 행동한다. 사회적 갈등을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화와 공론의 장을 확대하고 속의 민주주의를 확립하여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행동한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존중하고 병들게 하는 윤석열 검찰독재체제를 타파하여 검찰을 상식과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자리하게 할 것이다.

1987년 체제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없으며 국민 행복을 추구할 수도 없게 되었다. 제7공화국은 육아, 교육, 주택, 의료의 기본적인 수준을 제공하는 사회권을 보장할 때 완성된다. 모든 시민이 공정한 기회를 통해 더 행복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창의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도록 행동한다.

2024 년 2 월 14 일

조국신당(가칭)창당준비위원회